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b>주임신부</b> Fr. Bartholomew Choi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510) 562-3843 email : meoamor@gmail.com <b>사목회장</b> 이인학 시몬 (408) 234-5037 email : piccpeter@gmail.com	<b>사무실</b>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화, 금 휴무
--	---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11시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평일미사	화, 목요일 오후 7:30 수, 금, 토요일 오전 7:30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 목요일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시 반
	향심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
	지속적인성체조배	매월 첫 금요일 9PM ~ 토요일 7AM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10분

## < 오늘 전례 >

- [제 1독서]** 이사 49,3.5-6  
**[화답송]** 시편 40(39), 2ㄱ과 4ㄱ. 7-8ㄱ. 8ㄷ-9. 10(◎ 8ㄱ과 9ㄱ 참조)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 [제 2독서]** 1코린 1,1-3  
**[복음환호송]** 요한 1,14.12 참조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복음]** 요한 1,29-34

성가		입당 337	봉헌 213	성체 175 178	파견 411	
<b>전례 봉사</b>						
구분	연중 제 2주일(1월 15일)		연중 제 3주일(1월 22일)		연중 제 4주일(1월 29일)	
	8시 미사	11시 교중미사	8시 미사	11시 교중 미사	8시 미사	11시 교중 미사
미사해설	임승원 루카	3구역:김미숙 말가리다	이명국 바오로	4구역:김승희 글라라	정애리 스텔라	뜨락/하모니회
제 1 독서	강신호 요한	3구역:변귀태 성우안토니오	임승원 루카	4구역:윤성진 루카	이명국 바오로	뜨락/하모니회
제 2 독서	정수영 분다	3구역:이정현 마리크레센시아	김영선 안젤라	4구역:윤윤선 루시아	이정연 골롬바	뜨락/하모니회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오늘 2독서는 충실한 ‘주님의 종’ 이자 이방민족들의 빛으로 살아갔던 바오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 곧 자신을 오늘 1독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처럼 주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른도록” “민족들의 빛” 이 된 ‘주님의 종’ 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주님의 종’ 이며 “민족들의 빛” 이 되어야 할 소명을 갖는 사람임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러한 독서의 말씀에 이어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복음 속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이스라엘의 사제들은 매일 오전과 오후에 모세가 정해준 율법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곧 요한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 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이 되도록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오늘의 독서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주님의 종’ 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민족들의 빛” 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룩하신 구원의 기쁜소식이 “땅끝까지 다다른도록” 힘을 더해주어야 하는 사람

들이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느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분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자주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민족들의 빛” 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느님의 말씀에 기꺼이 응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사업의 협력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때론 하느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른도록” 우리를 “민족들의 빛” 으로 세워주셨지만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 주어진 소명 앞에 자주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녀로 살아가길 바라지만 자주 죄의 유혹 앞에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한 어린양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죄인인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희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크기보다 우리를 용서해주시는 하느님의 자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커다란 주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가운데 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종’ 으로 살아갈 것과 “민족들의 빛” 으로 우뚝 설 것을 다짐하시며, 다가올 모든 날에 이렇게 고백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이준 마르코 신부  
춘천교구 흥천성당 보좌

- 미사 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1/15(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생	최요셉(순일)가정	콩코드반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생	이미카엘(종규)	김요셉(정탁)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가족		생	팡데레사	김젬마
	연	서데레사(춘애)	가족		생	최안젤라/안드레아	정스텔라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생	임베드로/안젤라	김데레사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생	대자/대녀들 가정	익명
	연	유데레사(춘성)	권아네스(화옥)		생	이요셉(세강)	임루시아
	연	전안드레아(덕천)	가족	1/17(화)	연	부모님	최타대오(몽열)
	연	정시몬	전데레사	1/18(수)	연	연옥영훈	채토마스
	연	Terence Franks	가족	1/19(목)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연	지벨라뎃다(기재)	가족		연	배안토니오	김안드레아(명환)
	연	이요셉(재우)	윤루시아		생	이야고보(원진)	이바오로(영국)
	연	Richard Fong	이판금	1/20(금)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김한나(온길)	이마리미카엘라(정순)	1/21(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연	김제이슨(재성)	가족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가족
	연	박도마(정영)	이골롬바(정연)		생	이야고보(원진)	이바오로(영국)
	연	박로렌조(정선)	이골롬바(정연)		생	전아네스/스텔라	전데레사(윤자)
	연	서마리아(덕기)	이미카엘(종규)가족		생	천다니엘/아네스	전데레사(윤자)
	연	정다니엘	이베로니카		생	안아네스/박시몬	전데레사(윤자)
	연	홍안나(순자)	실버반		생	이야네스(명란)	염파트리샤
	연	김중화/이성원	정데레사(혜경)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 **설 합동 위령미사**

일시 : 1월 29일 11시 미사  
\* 아침 8시 미사는 없습니다.

◆ **주님봉헌축일**

주님봉헌축일(2월 2일)을 맞아 초축복 예식을 2월 2일(목) 저녁미사 중에 거행합니다. 이날, 1년동안 전례에 사용될 초와 전례용품을 봉헌하게 됩니다. 개인 기도초도 함께 축복해 드립니다.  
\* **오전 10시**에도 미사가 있습니다.  
\* 감실초/제대초 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2017년 교무금 약정서**

2017년 교무금 약정서를 작성하시어 친교실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 **2차 현금**

1월 15일(오늘) 오클랜드 교구 신학교를 위한 현금

◆ **세금보고자료**

세금보고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일시 : 1월 26일(목) 오후 4시  
장소 : 722 Washington St. Oakland  
문의 : 이선희 막달레나 510-566-0582

◆ **혼인 공시**

일시 :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3시 30분  
장소 : Mills College Chapel  
신랑 : 이상훈 신부 : 김현경 스테파니아

◆ **베이폴리포니 가톨릭 남성 중창단 단원 모집**

자격 : 베이지역 내 각 본당의 천주교 신자,  
각 파트에서 3년 이상 활동하신 분/전공자  
모집 파트 : Ten1, Ten2, Bas1, Bas2  
지도 신부 :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지원 프로필 : 이재우 야고보 510-329-3299  
이기하 비오 925-324-4628

◆ **북미주 한인 가톨릭공동체 50주년 3차 한국 성지순례**

일시 : 5월 15일 - 5월 25일(10박 11일)  
마감일 : 1월 30일(예약금 \$1,500)  
신청 및 문의 : 임미카엘라 201-359-6464

1월 구역반 모임			
구역	반	일시	장소
1	오클랜드	1월21일(토) 6시	교육관 107호
	실버	1월28일(토) 2시	파운더스룸
	알라메다	1월21일(토) 6시	정병구 베드로 댁
2	유니온	1월22일(일) 5시	이규주 시몬 댁
	캐스트로밸리	1월22일(일) 5시	허동원 요셉 댁
4	라스모어	1월23일(월)11시	김찬곤 안드레아댁

◆ **캄보디아 선교 후원**

캄보디아 선교 후원회(구:천사의 집)에서 \$1,000을 후원금으로 보냈습니다.

◆ 요아킴/안나회에서 뜨락/하모니 동계 수련회에 각각 \$200 씩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컵청소 당번**

1월 15일(오늘) : 3 구역  
1월 22일(다음주) : 4 구역

◆ **연도 안내**

예비자 이판금 자매의 남편되시는 요셉 Richard Fong의 1주기 연도가 오늘 교중미사 후 성당에서 있습니다.

◆ 오늘 간식은 정애리 스텔라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은행 휴무**

오늘은 은행 문을 열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친교와 모임** ♥

- \* 사목회의 : 1월 22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건강 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하이킹클럽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Redwood Regional Park 주차장 집합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안토니오(1/17) : 이동재, 이종주
- \* 아네스(1/21) : 이선영, 김옥순, 이영숙, 이윤정, 안숙모, 황현숙, 송성숙, 신영옥, 김혜숙, 이명란, 김순이, 한경화, 김숙자, 변혜수

한국학교 소식
- 1월 21일 : 붓글씨 수업
- 1월 28일 : 미술 수업

